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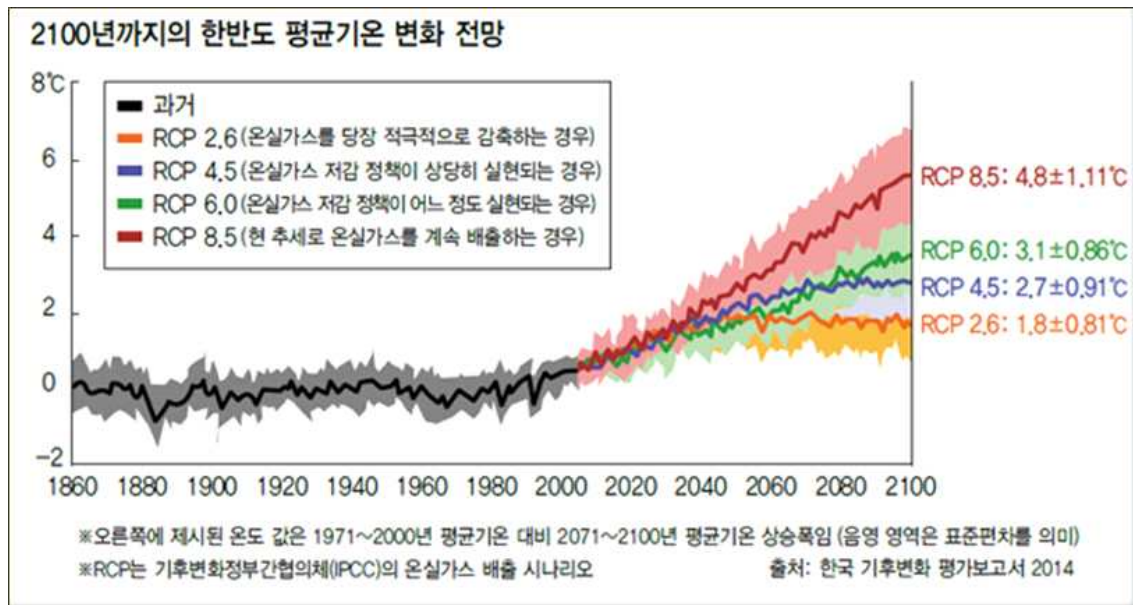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 생태-도시농업 분야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

### 1. 기후변화위기

- 2014년에 보고된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
- 2100년에 동해 해수면 138cm상승 예상(20세기 말 대비)
- 벼 생산량 6.7~10.6% 감소 예상(평균 온도 1℃ 상승 시)
- 가뭄, 병해충, 건강, 안전 등에 큰 영향 예상



### 2. 에너지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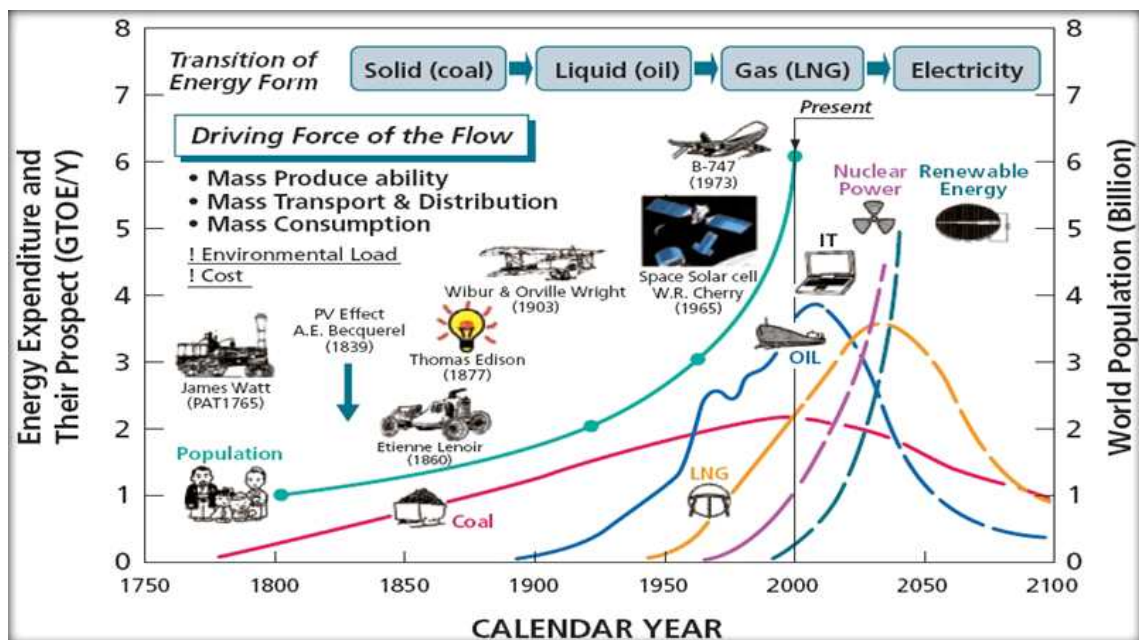
- 화석에너지원의 유한성
  - 석유매장량(추정) : 평균 70~80년
  - 석탄매장량(추정) : 평균 150~230년
  - 천연가스매장량(추정) : 평균 80~100년
- 2015~2020 사이 석유정점(Oil pick) 예측
- 고갈의 문제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 이슈 : 효율성이 빠른 속도로 떨어짐 (EROEI: Energy Returned On Energy Investment)
  - 1930년 1:100

-1970년 1:25

-1990년 1:15

-2010년 1:3

-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과소비 문명은 지속불가능함
-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화석에너지소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됨
  - 석유 이후의 세계 상상하기
  - 영국의<가디언>:'땅속에 놔두자!'캠페인
  - 탈성장과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필요
  - 핵발전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음



출처: Ref. Y. Hamakawa, "New Energy Option for 21st Century", AAPPS Bulletin Vol. 13, No. 3

### 3. 생물다양성(작물다양성) 위기

- 인간에 의한 6번째 대멸종 경고
- 15분마다 1종, 하루에 100종의 생물종이 멸종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런 속도는 이전 자연 상태의 멸종보다 100~1,000배 빠른 속도
- 이미 조류 11%, 포유류 25%, 양서류 33%는 멸종위협에 처함
- 작물다양성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지난 100년간 전 세계 식량품종 중 절반가량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음
- 1903년 판매된 미국 농무부 씨앗품종과 1983년 미국국립종자저장연구소 목록 비교 결과 약 93%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됨
  - 사탕무 288종 → 17종, 양배추 544종 → 28종
  - 단옥수수 307종 → 12종, 상추 497종 → 36종
  - 완두콩 408종 → 25종, 호박 341종 → 40종
  - 토마토 408종 → 79종, 오이 285종 → 16종

□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 서식지의 파괴와 변화, 분할
- 땅의 사용방식과 농사법의 변화
- 외래종의 침입
- 기후변화
- 남획, 사냥 등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 인간의 식량 공급원(식용가능 식물 12,500종)
- 산업발전의 기초자원 제공
- 의약 재료 제공(ex. 아스피린, 동양의학...)
- 사회적, 여가적 가치(ex. 숲치유, 생태관광...)
- 윤리적 가치

## 4.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생태·도시농업 분야

### 1) 생태분야 :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사는 생태도시를 만든다.

녹지는 그늘을 형성하여 직접적인 햇빛과 열을 막고 증발산을 통해 온도를 낮추므로 녹색공간의 보전과 확충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폭염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건강을 지킨다.

도시생태를 잘 가꾸고 보전하면 나무와 토양에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 있게 되므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녹지의 질적 개선 등 도시생태계 건강성 향상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력을 증가시킨다.

#### (1) 실천과제 1

□ 임무 : 녹색공간 확충으로 서울의 평균기온을 낮춘다.

서울시 공원면적은 170km<sup>2</sup>, 공원율은 28.1%이며, 1인당 공원면적은 16.3m<sup>2</sup>이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5.8km<sup>2</sup>로 가장 큰 공원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북구 14.3km<sup>2</sup>, 노원구 14.2km<sup>2</sup>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동대문구의 공원녹지 면적은 1.2km<sup>2</sup>로 가장 작았으며 용산구, 금천구도 각각 1.8km<sup>2</sup>, 2.2km<sup>2</sup>로 작게 나타났다. 공원녹지율이 높은 자치구는 대부분 청계산, 북한산, 관악산 등 서울 외곽에 위치하는 큰 규모의 산림을 포함하여 다른 자치구에 비해 녹지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울의 공원은 70%가 도시 외곽에 편중 분포되어 있으며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5.03m<sup>2</sup>로 실질적인 생활권 녹지는 부족하다. 또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걸어서 10분 거리 내 공원·하천면적을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26%에 달한다.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소외지역 해소와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여름철 도심기온을 낮추기 위해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목표

생활권 공원면적 확대, 옥상녹화,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 생활권 녹지면적을 2015년 대비 30% 이상 증가시킨다.

□ 행동계획

■ 시민

- 마을의 방치된 빈터를 찾아 작은 화단을 조성한다.

- 내 집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내 집 골목길에 화분을 놓고 함께 가꾼다.
- 내 집과 직장 주변 가로수를 함께 가꾼다.
- 우리 아이 학교에 학교 숲 만들기를 제안하며 나무를 심고 함께 가꾼다.
- 연 1회 이상 가족, 친구와 함께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한다.

#### ■ 기업

- 불투수토양포장 복원사업을 지원한다.
- 건물의 옥상과 벽면을 녹화하고 녹지를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 마을공원 조성사업 등 녹화사업을 지원한다.
- 공사에서 절개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 이상의 녹지와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공개공지, 가로시설물, 기업 녹지공간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 ■ 행정

- 도심 속의 작은 숲과 정원을 조성한다.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 프로젝트)
- 공공·민간건물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 학교 내 녹색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 도시 내 구조물 콘크리트 면을 식물로 녹화한다.
- 가로수 관리를 강화하여 녹음이 풍부한 걷고 싶은 보행로를 만든다.

## (2) 실천과제 2

### □ 임무 : 서울의 산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휴양과 치유의 숲으로 만든다.

2013년 서울시민이 원하는 복지서비스 1위는 ‘건강’ 분야이며,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 역시 보건의료시설(공공병원, 보건소 등)이 20.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59세 서울인구 중 35만 명이 매주, 250만 명이 월 1회 이상 등산을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숲이 포함된 경관을 바라만 보아도 뇌에서 발생하는 알파( $\alpha$ )파가 증가하며, 심리적으로 회복환경으로 인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산림치유는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서울의 산가꾸기,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의료관련 비용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민들의 스트레스 완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질의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 목표

2030년까지 건강한 숲길을 1,043km 조성하고 유아숲 체험장, 청소년 체험의 숲, 치유의 숲 등 건강한 숲 체험장 100개소를 조성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 □ 행동계획

#### ■ 시민

- 매년 1회 이상, 숲 관리 행사에 참여한다.
- 정해진 숲 속 산책로만 이용하여 무분별한 샛길을 만들지 않는다.
- 병해충에 걸린 나무나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잎이 시들어가는 것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이나 환경단체에 연락한다.
- 월 1회 이상 가족, 친구와 함께 숲을 체험한다.
- 동네 산의 유해식물 제거와 자생식물 보호에 참여한다.

#### ■ 기업

- 각종 개발을 할 때 주변지역과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 1사 1산, 1사 1공원 운동과 같은 기업차원의 나무심기와 가꾸기 사업을 한다.
- 직원들에게 숲 치유(녹색복지)를 위한 요가, 명상 등 숲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직원들이 여가시간에 숲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행정

-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여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청소년 체험의 숲을 조성하여 힐링과 레저를 제공한다.
- 등산로를 정비하고 무장애숲길을 확대한다.
- 테마가 있는 산책길을 발굴한다.
-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한다.
- 산림 병해충과 산불에 대한 예찰·방제를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 (3) 실천과제 3

#### □ 임무 : 꽃 피고 새가 노래하는 생물다양성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의 총 생물종은 5,228종이며 식물류가 2,168종으로 가장 많고 곤충류가 2,157종, 조류가 240종, 균류 364종, 포유류 29종 등이다. 서울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총 17개소에 4,818,361㎡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총 7개소가 지정·보호되고 있으며 이 중 중랑천 하류, 청계천 하류, 안양천 하류 등 3개소는 철새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인구증가와 고밀개발로 서식지가 감소되고 조각으로 나뉘어짐에 따라 생물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위적 교란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생물다양성 증진전략 수립 및 생태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하며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 생물다양성을 위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 및 시민참여 등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 □ 목표

자연생태보호지역 면적을 2030년까지 7.32㎢, 2015년 대비 17% 확대한다.

#### □ 행동계획

##### ■ 시민

- 자연관찰동호회 활동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 생물다양성관련 비정부기구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 서울의 생물다양성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 알아본다.
- 희귀 동식물을 발견하면 행정기관이나 환경단체에 연락한다.
- 자연환경 보호지역 출입을 자제한다.

##### ■ 기업

- 토지이용 시 주변 생물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시민들의 생물다양성보전 활동을 지원한다.
- 생물다양성보전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 행정

-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 자연환경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 소규모 생태연못 조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 시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탐사활동을 개최한다.
- 생태계 교란종을 관리하고 보호야생생물을 증식한다.
-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을 지정하고 모니터링한다.

#### (4) 실천과제 4

##### □ 임무 : 시민이 직접 숲과 하천을 돌보는 문화를 정착시킨다.

서울시는 산과 공원 등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서울둘레길 완주 원정대’, ‘둘레길 걷기축제’, ‘숲길여행’ 등 숲체험 프로그램, ‘시민정원사’, ‘조경아카데미’, ‘숲교육 아카데미’, ‘공원 생태교실’ 등 생태교육의 장, ‘공원·나무 돌보미’, ‘동네숲’ 등 시민들이 단순참여를 넘어 녹색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연대를 형성하는 시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녹색공간의 조성·운영·관리에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자연과 생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원과 나무를 관리함에 있어 기존의 관공서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의 체계화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 □ 목표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공원 돌보미, 나무 돌보미 등 녹색활동가를 2030년까지 13만 명으로 늘린다.

##### □ 행동계획

###### ■ 시민

- 숲과 녹지를 돌보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마을의 자연을 직접 돌본다.
- 내 집 앞 가로수 돌봄 활동에 참여한다.
- 원예와 관련한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 이웃들과 함께 시민녹화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 우리 마을 공원돌보미 활동에 참여한다.
- 시민 정원사 양성, 숲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 ■ 기업

-지역의 녹색문화 확산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하여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 회의실, 녹지공간 등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녹색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공원과 녹지 돌봄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 ■ 행정

- 시민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지원한다.
-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민관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
- 시민들이 공원과 가로수를 관리하는 돌보미 활동을 확산한다.

-공원 내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마당 및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2) 도시농업분야 :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을 활성화한다.

로컬푸드를 생활화하면 관행 먹거리 체계에서 식량을 운송하는 것보다 석유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로컬푸드를 직접 생산하는 활동인 도시농업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산물의 수송거리 단축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옥상텃밭 등을 통한 건물 녹화로 냉난방에너지 감소에도 기여한다.

### (1) 실천과제 1

#### □ 임무 :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늘린다.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따라 도시농업 실천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2011년 기준 최근 3년간 약 4배가 증가했다.

서울의 외곽지역을 활용한 주말농장이 서울시 도시농업 실천공간의 65%이며 이 중 강동구, 도봉구, 서초구의 개발제한구역과 팔당호 주변이 전체 주말농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농업 면적은 118ha로 서울시 면적의 0.2%, 공원 면적의 0.7%에 지나지 않는다.

도시농업 실천공간 대부분이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주말농장형 텃밭으로 도심 속 공동체 문화로 흡수되지 못하고 가족의 주말여가 수준에 머무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도심 내 농업용지 확보가 어렵고 자치구별로 도시농업 공간과 관심도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주거공간과 떨어진 텃밭의 위치로 텃밭 사용자의 만족도 저하 및 지속적인 도시농업 실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외곽에서 중심부로 도시농업 공간을 이동하고 사용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농업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 □ 목표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2012년 도시농업 원년 대비 2030년까지 10배 확충한다.

#### □ 행동계획

##### ■ 시민

- 공동주택단지 내에 텃밭을 조성하고 농작물을 경작한다.
- 주거생활권 내 자투리 텃밭을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 경작가능지를 찾고 지도화하는 활동을 벌인다.
- 경작가능지를 이웃과 공유한다.
- 각 마을별로 공동체텃밭 공간을 조성한다.
- 베란다, 옥상, 상자텃밭 등으로 직접 먹을거리를 생산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운영조직에 참여해 스쿨팜(School Farm) 조성을 건의하고 참여한다.
- 가족, 이웃과 함께 주말농장에 참여한다.

##### ■ 기업

-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발전시킨다.
- 국내외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다.
- 공간 및 식재 유형별로 최적화된 도시농업 기법을 개발한다.
- 낡은 건축물을 재활용해서 버섯농장이나 지렁이 사육공간으로 사용한다.
- 시민이 손쉽게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자재를 원활히 공급한다.

- 1기업 1지역사회 농업실천 공간만들기 운동을 통해 농업공간 확충에 동참한다.
- 도시농업관련 시민활동을 지원한다.

#### ■ 행정

-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의 옥상에 옥상텃밭을 조성한다.
-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를 위해 관련 법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 학교 내에 농장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도심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한다.

## (2) 실천과제 2

### □ 임무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유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인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판매는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공급처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을 공급하여 유통경비 절감에 기여한다. 농부의 시장, 서울장터 등 도시농업장터는 2012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2012년 1개소에서 2013년 도심공원, 한강공원 등으로 확대되어 12개소, 2014년 23개소로 증가하였다.

농부의 시장이 특정 공간에 국한되어 장터가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장터의 개소수 증가와 운영횟수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상품의 신선도, 접근의 편리성에서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 □ 목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농부시장’의 개최 장소와 장소별 운영 횟수를 늘려서 전체 운영 횟수를 매년 10% 이상 확대한다.

### □ 행동계획

#### ■ 시민

- 비닐,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순환 농업을 지향한다.
- 마을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이웃과 나눈다.
-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을 만들거나 이용한다.
-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여 생산자를 지원한다.
- 내 집 주변 지역먹거리 장터에 대해 알아본다.
- 지역생산자, 도시농업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농부시장(Farmer's Market)을 개최한다.
- 내가 먹는 음식의 생산·유통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에 대해 알아본다.

#### ■ 기업

- 기업에서 소요되는 식자재는 지역먹거리를 이용하고 직거래장터를 활용한다.
- 기업의 홍보활동에 지역먹거리 이용관련 내용을 홍보한다.
- 단체급식을 할 때 지역먹거리를 이용하고 식품소재의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한다.

#### ■ 행정

-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정기적인 농수산물 직거래시장인 농부시장을 확대 운영한다.
- 시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생산 농가에게는 판로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추석 명절 서울장터를 운영한다.

- 1일 농촌체험프로그램 ‘도시가족 주말농부’ 운영으로 계절별 농·수산물 수확체험과 요리실습



등을 통하여 농어촌 이해를 증진한다.

### (3) 실천과제 3

#### □ 임무 :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도시농부 수를 늘린다.

자투리텃밭, 상자텃밭, 친환경텃밭농장 등 서울형 도시농업의 꾸준한 보급과 함께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관심과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도시농업 실천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시민 외에도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에는 2014년 10,146명이 참여하였으며 도시농부학교에는 5,000명이 참여하는 등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보이는 시민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도시농업박람회, 워크숍 등 관련 프로그램의 참석자를 고려하면 2011년 이후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환경 등 다른 분야에 비하면 도시농업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다.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공감하고 실천을 위한 인식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 목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과 박람회, 축제 개최 등 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농부를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

#### □ 행동계획

##### ■ 시민

- 도시농부학교에 참여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텃밭교육 강사가 되어 아이들 먹을거리 교육을 지원한다.
- 도시농업과 관련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거나 활용한다.
- 토종종자 나누기, 경작토지 공유하기 등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 도시농업관련 비정부기구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한다.
- 가족, 이웃과 함께 도시농업과 녹색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 주말농장 등 규모가 되는 도시농업실천공간에는 유기퇴비 생산 공간을 만든다.

##### ■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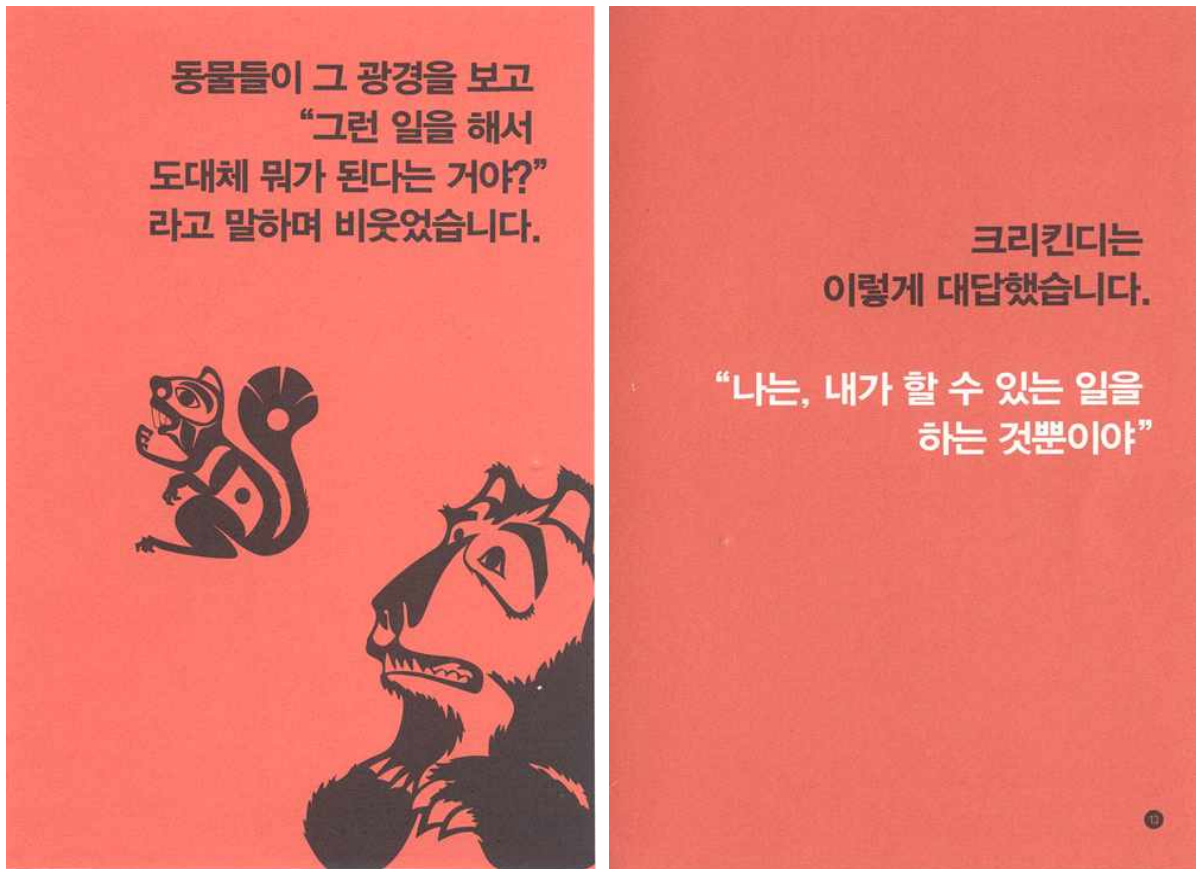
- 직원들이 여가시간에 농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건물옥상 등 텃밭조성 가능공간을 개방하고 직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민간단체의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 행정

- 초보 도시농부를 위한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도시농업 리더를 양성한다 .
-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운영으로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한다.
- 국제 수준의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과, 세계 속의 도시농업 사례를 공유한다.
- 절기별 텃밭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5. 무엇을 할 것인가?



※출처 : 츠지 신이치(2008) 별새의 물 한 방울. 코이노니아